

## 전체 주제:

## 하나님의 뜻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 메시지 4

##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

성경: 행 13:22, 36, 엡 1:9-11, 3:9-11, 히 10:5-10, 롬 12:1-21

- I. 구약에는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긴 사람이었다(행 13:22, 36). 다윗의 마음에 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삼상 13:14상, 왕상 8:17, 대상 22:7, 28:2, 마 16:18, 엡 2:20-22, 4:16).
- II.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뜻의 의결, 하나님의 목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와 표현을 위해 한 몸을 얻는 것이다 — 엡 1:9-11, 22-23, 3:9-11.
- A.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있고,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확대와 표현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된 한 몸을 얻는 것이다 — 스후 12:1, 요 1:12-13, 엡 5:26, 고후 4:16, 3:18.
- B.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또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엡 3:9-10.
- C. 에베소서 1장은 특정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1:9), 곧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밝혀 준다.
1.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 달의 결과라는 것을 제시한다.
  2.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새사람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엡 2:10, 15-16.
  3.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엡 3:8, 14-19.
  4.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이라는 것과 이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엡 4:4-6, 11-16.
  5.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임을 제시한다 — 엡 5:8-9, 25-27.
  6.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엡 6:10-20.
- D.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고전 12:24). ‘섞다’라는 말은 또한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 등을 의미한다.

1.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섞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2. 섞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섞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엡 3:8-10, 1:9-10)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계 21:2)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III.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치하시는 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 히 10:5-10, 시 40:6-8.**

- A. 새 언약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제정하는(마 26:28) 요인 이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전부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 B.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대치하시고, 구약에서 예표로 사용된 모든 것들을 폐지하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옛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결하시기 위해 시대를 바꾸셨다(고후 5:17, 갈 6:15). 그분께서 시대를 바꾸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우주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1.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레위인 봉사의 희생 제물들을 대치하시고 종결하시기 위해 오셔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했다(6, 11-12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모든 제물을 대치하시기 위해서였다(히 10:5).
  2. 그리스도는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의 희생 제물들을 폐지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을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 히 10:9.
    - a. ‘두 번째 것’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 히 10:9.
    - b. 이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히 10:10.
- C. 그리스도께서 제물들의 실재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진실함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기 위하여, 신성한 실재가 우리의 참됨과 성실함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 요 4:23-24.
  1.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었던 번제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 곧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민 28:2-3, 요 7:16-18.
  2. 소제물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시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한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2:1, 4, 요 7:46, 18:38, 19:4, 6.
  3. 화목제물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교통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만족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다 — 레 3:1, 엡 2:14-15, 요 12:1-3, 20:21.
  4. 속죄제물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의 죄악된 본성을 처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4:3, 고후 5:21, 롬 8:3, 요 1:29, 3:14.
  5.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처리하신 그리스도

를 예표한다 — 레 5:6, 벧전 2:24, 3:18, 사 53:5-6, 10-11, 요 4:15-18.

6. 요제물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7:30, 10:15.

7. 거제물은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강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7:32, 출 29:27, 엡 1:21.

8.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서 쏟아부어지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쏟아부어지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23:13, 출 29:40, 민 28:7-10, 사 53:12, 빌 2:17, 딤후 4:6, 사 9:13.

D.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를 위해 모든 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분의 우주적이고 확대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를 이루는 것이다 — 요 14:23, 계 21:3, 22.

#### IV.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몸의 생활을 실행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갖게 하는 것이다 — 롬 12:1-21.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몸의 다른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게 한다 — 롬 12:4-5.

1. 로마서 1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두 단어는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사상 혹은 사실을 함축한다.

2. 몸의 실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명한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B.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인 교회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필요하다. 드러진 몸과 변화된 혼과 불타는 영은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는 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 롬 12:1-2, 11.

1.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한다.

a.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은 복수형이고 ‘희생 제물’은 단수형이다. 이것은 비록 많은 몸이 드러지지만 그들이 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봉사가 분리되거나 서로 상관없는 개별적인 많은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b.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의 전체적인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봉사이기 때문에 유일해야 한다.

2. 우리 몸을 드린 후에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 롬 12:2-3.

a.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생각을 영에 둔(롬 8:6) 결과이며, 우리의 혼이 변화되기 위한 기초이다. 우리의 생각은 혼을 주도하는 부분인데, 생각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의지와 감정 또한 자동적으로 이 생각을 따라 새로워진다.

b.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적으로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산출하여 우리를 교회생활의 실행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적합하게 만든다.

3. 우리는 분발되고 격려받아 교회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 죽은 공허한 지식과 교리적인 형식은 우리를 하락하고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다. 우

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실재를 누릴 수 있도록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끊어 오르며 불타야 한다 — 롬 12:11, 계 3:16, 19-22.

- C.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은혜는 어떤 기능과 능력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온다. 이러한 기능과 능력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과 더불어 생명의 은사로 발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 롬 12:4-8.
- D.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이며, 교회생활과 부합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여 준다. 그러한 생활은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몸의 생활을 위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 롬 5:17.
- E.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롬 5:10-11)은 우리가 은혜(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실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지적인 몸의 생활이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성경의 최고의 계시 — 그리스도의 몸

기도: 주님, 우리 가운데서의 당신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지어 우리 안에서의 당신의 움직임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회복이 이 시대의 당신의 마지막 증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환경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신 것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당신은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당신의 말씀을 위해 항상 함께 모이도록 우리를 함께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밤 당신께서 우리와 하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참으로 당신과 한 영이 되기를 갈망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참으로 우리와 하나이시며, 심지어 이 훈련에서도 우리와 하나이심을 믿을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온전케 하는 훈련을 당신께 바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새로운 출발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이 지역에서 당신을 추구하는 많은 성도를 얻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전보다 더욱 당신의 말씀을 열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금년의 온전케 하는 훈련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출발,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밤 다시 각 사람을 방문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이르시며, 각 사람을 만지시고,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주십시오. 훈련 집회의 각 부분에 기름을 발라 주십시오. 주님, 모든 형식과 모든 관습으로부터 이 집회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형식과 모든 관습을 제거하기 원하며, 다만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당신의 회복과 당신의 증거를 위한 싸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이름 안에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 몸

이번 집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성경의 최고의 계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는 성경이 육십육 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육십육 권이 적어도 천육백 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다. 이 육십육 권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 그것들은 창조와 구원 등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 성경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성경에서 많은 주제들을 찾아냈지만, 우리 모두는 ‘몸’이 바로 최고의 항목임을 보아야 한다. 성경에 있는 수천 가지 단어들 가운데서 ‘몸’이 가장 우리의 눈에 띄어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큰 단어는 ‘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놓치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쉬우며 잃어버리기 쉬운 요점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요점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배경에서 왔다. 나는 여러분이 기독교에 있었을 때 몸에 관한 합당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신한다. 나는 칠 년 반 동안 형제회에 있었다. 오십 년 전에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었다. 나는 매주 다섯 번 그들의 집회에 갔다. 나는 몸에 대해서는 한 메시지도 들어 보지 못했고, 열 뿔과 네 짐승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만 들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비밀한 몸이 있다고 가르치는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 나는 그분의 개인적인 몸 외에 비밀한 몸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

전쟁 후 1950년대 말에 나는 이 나라(미국)에 왔다. 나는 몸에 대하여 많은 말을 들었다. 몸의 생명과 몸의 사역이라는 용어들을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러 갔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적어도 몸이 없었다. 오늘날 성경에 있는 계시 중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이 한 가지, 곧 '몸'이다.

지난 이 년 동안 우리는 바울의 사역이 신성한 계시를 완성하기 위한 완성하는 사역임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 성경에서 바울의 모든 저서가 아니더라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성경에 큰 부족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책들을 제하면 것처럼 큰 부족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바울의 저서들은 신성한 계시의 완성이다. 우리는 이러한 완성하는 사역이 전적으로 몸에 집중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네 책들 안에서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1장과 4장,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없애 버린다면, 바울의 저서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장들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정점, 궁극적인 요점이 바로 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출하신 최고의 항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늘들이 산출되었고, 땅이 산출되었으며, 사람이 산출되었고, 심지어 수천 가지 항목들이 산출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고, 모든 세대를 통해 일해 오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항목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세기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일로부터 궁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다. 산출된 것은 바로 몸이다. 몸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의 궁극적인 항목이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에서 최고의 항목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 문제를 놓쳤을 뿐 아니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몸의 실질적인 상태를 그다지 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로마서에 대한 다양한 강해서들을 본다면, 어떤 것은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어떤 것은 좀 더 전진하여 거룩하게 됨에 대하여 말하지만, 몸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기란 어렵다. 어떤 강해서들은 13장에 나오는 정부에 대한 것은 가르치지만 12장에 나오는 몸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젊었을 때 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제회 교사가 쓴 고린도전서에 대한 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은 주로 고린도전서가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열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말한다. 비록 그 책이 이 열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항목인 12장의 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12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볼 때, 우리는 12장의 삼분의 이가 몸에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성경 교사들과 해설가들은 다른 요점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만 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분열, 음행, 소송, 결혼 등과 같은 문제들은 알기 쉽지만, 몸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책이 주님의 상 집회에서 떡으로 상징된 주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에 대해서 말했다. 이 가운데 많은 책이 특별히 떡 조각이 그리스도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몸이 된다고 말하는 천주교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항하여 말했다. 그러나 주님의 몸에 대한 또 다른 방면을 말하고 있는 저자들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방면은 그분의 물질적인 몸이며, 다른 방면은 그분의 비밀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극소수이다. 젊었을 때 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성찬식'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백 명 중 한 명도 그 떡이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보다 그들은 그 떡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진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

한다는 것만 깨달았을 뿐이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것이 ‘몸’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이다.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틀니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좋은 틀니라 할지라도 실지적인 몸의 일부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공적인 부분이며, 우리의 몸에 넣어진 이물질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부분도 다 유기적이어야 한다. 최근에 한 자매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오빠에게서 떼어 낸 신장이 그녀의 몸에 이식되었다. 그것은 틀니를 끼워 넣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자매의 몸에 신장을 이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기적인 것이었다.

## 유기적인 지체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구속된 죄인들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들은 유기적일 뿐 아니라 합당하게 유기적이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 자매는 많은 것을 통과했다. 달리 말해서, 그녀의 신장은 합당하게 유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조정을 거쳤다. 내과 의사들은 그 신장이 합당하게 유기적이 되도록 많은 조정을 해야 했다. 몸 안에서 합당하게 유기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소위 교회에 가입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합당하게 유기적으로 심어진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합당하게 유기적인 연결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몸의 일부가 될 것이다. 모든 영국 국민이 영국 국교회의 구성원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유기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겠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지만, 그들은 거듭남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든다고 알려 주는 성경의 절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네 권의 책에만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절들이 있다. 신약의 처음 네 권인 복음서들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는 사도행전에도 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린도전서보다 더 깊은 고린도후서에도 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바울은 이 네 권의 책 외에 어떤 서신서에서도 몸을 언급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도 바울만이 우리에게 몸을 계시해 준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유다는 몸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계시를 완성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만이 몸에 대해 말했다. 그의 열네 권의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네 권만이 몸을 언급한다.

우리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 가운데서 어떤 것이 유기적인 연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더 전진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사복음서가 네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한 인격을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이 네 권의 책은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몸을 조명해 준다. 이 네 권은 몸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두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는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유기적인 연결의 문제이다.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이 짧은 한 절만이 로마서 12장이 어떤 각도에서 몸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그것은 생명의 연결의 각도에서,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몸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이식되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은 재출생을 통해 우리를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이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짧은 표현은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사상 또는 사실을 함축한다.

로마서 12장은 왜 몸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유기적인 연결에 근거한 몸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결 안에는 생명이 있다. 틀니가 내 입안에 넣어질 수 있지만 나와서 유기적인 연결은 없다. 틀니는 유기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유기적인 방

식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이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해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로마서 12장을 말하지만, 이 장이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몸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몸은 단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하나의 사회이다. 1963년에 나는 미국 전역에 걸쳐 많은 곳에서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 당시에 많은 작은 단체들은 '뜨거웠다'. 그들은 모두 서로 포용하기를 좋아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질겁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고약한 냄새가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일종의 포용하는 사회일 뿐이었다.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단체와 함께 있었을 때, 나는 에베소서 4장에서 주로 겸손, 사랑의 매는 줄, 온유함 등에 대해 말하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었다. 비록 그들이 하나에 대해서까지도 말했지만, 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모두가 참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몸인가? 공자도 이러한 몇 가지 것들을 가르쳤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자는 온유와 겸손과 친절을 가르쳤지만, 우리 모두를 몸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은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보존하는 생명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몸 안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몸 밖에 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그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지만 자주 이 연결을 떠나므로 몸 안에 있지 않다.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실지로 몸의 생활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한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실지로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을 떠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한 몸을 떠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한담, 자유로운 말, 느슨한 대화가 우리가 몸을 떠났다는 강한 표시라는 뜻이다.

몸은 조직이 아니며 사회도 아니다. 몸은 단지 함께 모이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에 의해 함께 연합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몸을 떠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몸을 떠났다는 강한 표시이다. 그러므로 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롬 12:5). '그리스도 안에서'란 유기적인 연결을 함축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 새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왕국 혹은 시민, 하나님의 거처라고 알려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는 또한 신부와 전투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항목이 몸이고, 다른 모든 항목은 부차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상 에베소서는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사람인 몸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몸에 대해서 말한다. 다른 모든 항목은 부차적인 것이다. 기본적인 항목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몸이다.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몸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몸은 신부이다. 몸은 전투원이다. 이것을 바꾸어서 전투원이 몸이고, 집이 몸이며, 새사람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몸이 주된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부차적인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375-384쪽)

##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짧은 말을 주었다. 이 짧은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일종의 연결이 있다.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었을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번역자들을 극도로 괴롭혔다. 거의 모든 번역자들이 그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어에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다. 거기서 주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들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절). 우리의 배경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표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굳이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었다. 대부분 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주의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표현은 일종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며, 유기적인 연결은 자연스럽게 연합을 함축한다. 여러분은 차(茶)를 물속에 넣을 때, 연합되지 않고 연결되는 방식으로만 차가 물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짧은 말이지만, 이것이 작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표현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분명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 핵심 요점을 뒷받침하는 것들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성경에 있는 각 권마다 뒷받침해 주는 핵심 요점을 가진 많은 절이 있다.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들은 하나의 책상을 떠받치고 있는 네 다리로 여겨질 수 있다. 작은 책상도 그것을 받쳐 주는 네 다리를 갖고 있다. 어떤 책에서 핵심 요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을 발견하려면 책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뒷받침해 주는 절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뒷받침하는 절들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유기적인 연결을 뒷받침해 주는 절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5장에는 몇 개의 절들이 있다. 10절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지만,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마르틴 루터가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많이 강조했다지만, 나는 그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한층 더 높다. 그다음으로 18절은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의롭게 됨이 생명을 위하거나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21절은 계속해서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리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에 이르다(unto)’라는 말은 ‘...을 목적으로’ 혹은 ‘...의 결과에 이르는데’를 뜻한다. 은혜는 생명을 목적으로 혹은 생명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 왕으로서 다스린다. 5장에서는 생명이 적어도 네 번 사용된다. 첫째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둘째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며, 셋째로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으며, 넷째로 은혜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러므로 5장에 따르면, 의롭게 됨이 아닌 생명이 그 초점이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6장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3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라고 말한다. 많은 교사들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강조해 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

례를 받았다. 나는 다른 이들의 결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머리 보다는 꼬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꼬리를 붙들고 머리는 잊어버린다. 많은 교사들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알려 주는 메시지를 결코 들어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한 이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연결의 사상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로마서 6장 4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5절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자라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결이다. 이 연결 안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기 위한 성장이 발생한다. 5절에는 유기적인 연결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것은 일종의 유기적인 연결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생명이 자라며 성장이 있게 된다. 한편이 다른 한편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결이다.

로마서 6장 8절은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만 그분과 함께 머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뜻이다. 11절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라고 말한다. 13절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결을 가리킨다. 이 장에 있는 마지막 절 또한 유기적인 연결을 뒷받침해 준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23절)

오늘날 오순절과 사람들은 종종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까?”라고 묻는다. 그것에 대해 나는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은사입니까?”라고 되물을 것이다. 이 질문은 그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이다. 그들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할 때 주로 다른 언어(방언)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것이 더욱더 큰 은사이다.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이 값없는 은사임을 뜻한다.

로마서 8장에도 유기적인 연결을 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를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몇 개의 절들이 있다. 2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언급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영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 이것은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6절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라고 말하며, 10절은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라고 말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에서 우리는 8장에 있는 이 절들이 사중(四重) 생명의 문제를 계시해 준다는 것을 지적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다. 둘째, 우리 사람의 영이 생명이다. 셋째, 생각이 생명이다. 끝으로, 우리의 몸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첫째로 그 영의 생명이며, 그다음에 이 생명은 우리의 존재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혼을 적시며, 결국 우리의 몸을 적신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결이다.

접붙임을 계시하는 로마서 11장 또한 유기적인 연결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우리 모두는 야생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었으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연합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나무 안으로 접붙여진 가지들은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연합되었다. 가지들이 연결되기만 하고 연합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가지들은 두 개의 철근과 같지 않다. 두 개의 철근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연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 안으로 접붙여진다면, 분명히 그 둘은 연합된다. 두 개의 철근은 단지 서로 이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것들은 유기적인 연결을 갖지 않는다. 유기적인 연결은 연합의 문제이다.

로마서 11장에서 12장으로 나아가자. 12장은 우리의 몸을 헌신함으로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다만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산출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얻는 것이다.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

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곧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하나의 핵심 요점인 ‘그리스도 안에서’를 뒷받침해 주는 이 모든 것을 보았는가? 12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결에 근거하여 믿는 이들이 자신의 세 부분을 훈련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1절에 몸이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드러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2절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을 대표한다. 그것은 우리의 혼의 주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몸의 생활을 위한 혼의 변화를 말한다. 몸은 드러질 필요가 있으며, 혼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11절은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몸의 생활을 위해 사람의 영, 연합된 영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러야 한다. 그다음으로 우리의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영은 불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존재의 세 부분이 모두 훈련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인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합을 완전히 체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러야 한다. 몸이 하나님께 드러진 후에는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혼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요점에 대한 가르침을 좀처럼 들어 볼 수가 없다. 변화나 생각이 새롭게 됨에 관한 메시지를 거의 들어 볼 수 없다. 과거 이십 년에 걸쳐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몸은 드러지고 헌신되어야 한다. 우리의 혼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영은 불타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하다면, 나는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몸의 생활 안에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갖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결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몸을 드러지 않으며,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혼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이 불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몸 밖에 있으며 몸을 떠나 있는 것이다.

### 실지적인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감

이제부터 우리는 이 훈련의 많은 부분을 로마서에 할애하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가 시간이 있다면, 로마서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여러분의 사고와 느낌과 감각을 로마서에 한정하라. 시간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나는 또한 여러분이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교통하기를 바란다. 두셋, 많아야 네 사람 정도와 교통하는 것이 좋다. 결혼한 사람들인 우리는 항상 적어도 두 사람은 된다는 점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교통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계시가 필요하며, 이 문제를 보기 위해 보다 강한 이상이 필요하다. 그것은 너무나 비밀스럽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비밀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몸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몸과 관련하여 이 책을 상고하는 데 여러분의 내적 존재를 훈련하라. 또한 우리가 과거 두 번의 온전케 하는 훈련 집회에서 다룬 것들을 생각하라. 그것들이 다만 교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귀한 빛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기도하고, 교통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온전케 하는 훈련은 여러분에게 단지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실지적인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실지적인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몸의 생활과 몸에 대한 이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실지적인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389-397쪽)